

국문 장편소설 속 역사 기반 선협형 악인 여성의 존재 서사

-〈완월회맹연〉의 진소아, 〈임씨삼대록〉의 묘월과 능운을 중심으로*

김수연**

〈차례〉

1. 시작하며
2. 선협의 개념과 선협형 인물 유형
3. 역사 기반 선협형 악인 여성의 존재 서사
 - 1) 도선과 무협 이미지 : 주변부 속성의 결합
 - 2) 역사의 패자 서사 : 타자의 기억 소환
 - 3) 반역의 의리 담론 : 탈관계와 ‘경계-성원’의 지향
4. 국문 장편소설의 서사문법과 장르적 확장 가능성
5. 마치며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18세기 이후 본격화되는 선협형 여성 인물의 서사적 특징을 살피고, 이러한 인물형의 등장이 지닌 의미를, 국문장편소설의 서사문법과 장르적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는 데 있다. 한국 고소설사를 살펴보면, 시대마다 특정 장르를 중심으로 유의미한 인물형이 본격화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10세기 이후 등장하는 애정 전기소설의 ‘전기적(傳奇的) 인간’과 17세기 이후 초기 장편소설의 ‘악녀형(惡女型) 인물’이 대표적이다.

18세기에는 방대한 편폭의 국문 장편소설이 유행하는데, 이때 새롭게 부상하는 인물 유형 가운데 하나가 선협형(仙俠型) 인물이다. 선협형 인물은 다시 선인형과 악인형, 유협형과 도협형, 문협형과 무협형, 내단형과 외단형, 도술수련형과 서책수련형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작중 인물은 하나의 유형만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성격을 결합하여 형상화된다.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2023-0033).

**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그 가운데 역사를 기반으로 구성된 선협형 악인 여성의 존재서사를 도선과 무협의 이미지, 역사의 패자 서사, 반역의 의리 담론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각각은 주변부 속성들을 결합하고, 타자의 기억을 소환하며, 탈관계와 경제적 성원의 목소리를 지향하는 특징이 보인다. 이러한 인물 특성은 국문 장편소설의 중요한 서사문법 중 하나를 이루며, 이후 부각되는 협객서사와 무협소설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장르 확장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특히 오늘날까지도 인기를 끄는 무협소설의 초기적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역사와 허구의 융합, 역사관의 재해석, 사회의 우회 비판 외에 선협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식, 문과 중심의 관계 설정, 정(正)과 사(邪)의 쟁론적 성격이 대표적이다.

선협형 인물의 부각은 이전의 소설에서 보이지 않던 대상,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발견하게 하고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담론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로 표현된 세계는 비가시적 존재를 가시화하여, 우리가 사는 세계에 참여하는 목소리의 비중과 분할 비율을 새롭게 구성한다. 그것은 작가의 의식적 의도와는 무관한 소설의 자기 구성방식으로, 작가가 지향하는 목소리들 사이에서, 소설이 새로운 인물의 목소리를 확대해 들려주는 것은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는 동시에 사회 구성원 간에 배분된 목소리의 몫에 변동을 가져오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문장편소설, <완월회맹연>, <임씨삼대록>, 선협형 인물, 무협, 담론사건

1. 시작하며

이 글의 목적은 18세기 이후 본격화되는 선협형 인물의 등장에 주목하고, 그중 역사를 기반으로 구성된 선협형 악인 여성의 서사적 특징을 살핀 후, 선협형 인물의 등장이 지닌 의미를 국문 장편소설의 서사문법과 장르적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는 데 있다. 더 나아가 이것을 비가시적 목소리를 가시화하는 문학적 장면이자 하나의 담론사건이라는 관점으로 확장하며, 문학적 장면의 사회문화적 해석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한국 고소설의 흐름을 살펴보면, 시대마다 특정 장르를 중심으로 유의미한 인물형이 본격화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10세기경에 나타나 15세기~17세기에 전형을 이룬 애정 전기소설의 ‘전기적(傳奇的) 인간’과¹⁾ 17세기 후반에 가부장제를 배경으로 등장한 초기 장편소설의 ‘악녀형(惡女型) 인물’이 대표적이다.²⁾ 전기적 인간은 주로 전기소설의 제1 남성 주인공[protagonist]의 특징을 설명하고, 악녀형 인물은 일반적으로 초기 장편소설의 제2 여성 주인공[antagonist]을 대상으로 한다.

18세기 이후에는 수십에서 수백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국문 장편소설이 유행하는데, 이때 새롭게 부상하는 인물 유형 가운데 하나가 선협형(仙俠型) 인물이다. 선협(仙俠)의 기원은 신선전과 유협전, 그리고 도교 인물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선협 형상은 『산해경』과 『열선전』, 『진고(眞誥)』와 『사기』 등에서부터 이어진 동양의 오랜 서사 전통으로, 당(唐)의 전기(傳奇)에서 본격적으로 소설화된다. 당의 전기는 애정 고사 외에도 신괴(神怪)와 협의(俠義)와 역사 고사를 다수 포함하는데, 전기적 인간이 애정류 전기의 서사문법과 긴밀하다면³⁾ 선협형 인물은 신괴·협의·역사류 전기의 서사문법을 계승하고 변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명(明)에 오면 이것은 〈서유기〉와 〈봉신연의〉,⁴⁾ 그리고 〈평요전〉⁵⁾ 같은 신마소설류로 이어지며 확장

1) 박희병, 「전기적 인간의 미적 특질: 전기소설 서사문법의 규명을 위한 예비적 작업」, 『민족문학사연구』 7, 1995, 120~140쪽.

2) 조현우, 「〈사씨남정기〉의 악녀 형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2006, 319~348쪽.

3) 박희병(1995), 앞의 논문, 121~123쪽.

4) 선협은 일군의 현대 중국 소설과 영상 작품을 지칭하기도 한다. 김보경은 선협이 무협보다 비현실적, 초자연적 특성을 지니고, 선협 작품에는 신(神), 선(仙), 인(人), 요(妖), 마(魔), 명(冥), 귀(鬼) 등의 인물과 법기(法器), 선기(仙器), 초능력 등이 나타난다고 하며, 〈서유기〉를 선협류에 포함했다. 김보경, 「21세기 중국 선협 영화의 발전 및 그 공간 미학 연구-서유기류 작품을 중심으로」,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2), 2019, 117쪽. 유약봉은 선협을 신화, 지괴, 검선(劍仙), 무협을 융합한 이야기로 보고, 선협의 종류를 고전 선협(신화 선협), 판타지

된다.

국문 장편소설의 선협형은 주인공과 보조인물을 아우른다. 선협형을 모두 다루는 일은 상당한 규모의 작업이므로, 이 글에서는 선협형의 유형 특징을 잘 드러내는 보조인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선협형 보조인물은 많은 경우 서사적 비중 면에서 일반 보조인물을 넘어선다. 주요한 사건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이들은 주연급 조연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남성 인물보다 여성 인물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선협형 남성 보조인물은 능력이나 서사적 비중이 여성 인물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협형 여성 보조인물은 선협형 인물의 특성을 고찰하는 데 의미 있는 인물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선협형 여성 보조인물은 대부분 악인형 인물 중 하나로 다루어졌을 뿐,⁶⁾ 이들이 구성하는 유형적 특징과 서사적 의미를 총괄적으로 검토한 보고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⁷⁾ 국문 장편소설에서 본격화되며 서사문

선협, 수진(修真) 선협으로 분류했다. 유약봉, 「선협 영상 작품에서의 미장센 특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4~6쪽.

- 5) <평요전>은 원말명초에 나관중(1330-1400경)이 20회로 창작한 것을 명대 풍몽룡(馮夢龍, 1574-1646)이 40회로 개작한 작품이다.
- 6) 이러한 유형의 인물 중 일부는 여성 영웅이나 문제해결자형 인물로 분류되기도 한다. 한길연, 「탈속 공간을 지향하는 여성영웅들에 관한 小考 : <화정선행록>의 ‘충효혜’와 <임화정연>의 ‘석가월’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7, 국문학회 2002, 325~355쪽; 김지연, 「여성 ‘문제해결자’형 인물의 활약과 <임화정연>의 윤리-화방아·여회주·석가월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195~235쪽.
- 7) 이 글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인물들에 대한 연구에는 유교와 도교 간 쟁론 양상을 다룬 것과 여성 인물의 도술 및 선도 수련을 고찰한 것 등이 있다. 김수연은 <완월회맹연>의 유도 쟁론을 고찰하며 진소아 등이 도교를 유교와 대등한 사문(斯文)으로 변론하고 있음을 다루었다. 최수현은 옥선군주와 옥경군주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그들의 조력자로 묘필과 능운을 다루었고 여성들의 도술이 여성연대와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 의식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채윤미는 선도(仙道)를 수련하는 여성의 형상에 신분의 식이 반영됨을 확인했다. 김수연, 「18세기 사족(士族) 소설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법의 하나를 이루는 선협형 여성 보조인물의 형상화는 이후 국문과 한문 장편소설에 등장하는 특징적 여성 인물군은 물론 <검녀>와 같은 여성 주인공 선협 서사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한국 고소설의 무협소설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선협형 여성 보조인물 가운데 서사적 특색이 두드러지는 역사 기반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들의 존재서사는 선협형 인물이 지닌 주요 특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추후 작업에서 진행될 선협형 인물들 전반에 대한 심화된 논의를 이끌어가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선협의 개념과 인물 유형을 개괄하고, 이어 본격적으로 역사기반 선협형 여성 보조인물을 중심으로 존재서사의 특징을 살핀 후, 그 의미를 확장하여 선협형 인물의등장이 지닌 소설사적 의미를 전망할 것이다. 역사 기반 선협형 여성 인물에 대한 논의는 인물의 존재서사가 뚜렷한 <완월회맹연>⁸⁾과 <임씨삼대록>⁹⁾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유(儒)·도(道) 쟁론, 『우리문학연구』 69, 2021, 41~77쪽; 채유미, 「한글장편소설의 요승·요도 형상 연구-〈임씨삼대록〉, 〈쌍성봉효록〉, 〈명행정의록〉, 〈명주보월빙〉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0, 2020, 141~173쪽;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선도를 수련하는 여성 형상 연구-〈임화정연〉, 〈보은기우록〉, 〈명행정의록〉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43, 2020, 133~165쪽; 최수현, 「〈임씨삼대록〉에 나타난 도술의 특징과 그 기능-애정 욕망 발현 여성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3, 한국고소설학회, 2017, 127~159쪽.

8) <완월회맹연>은 18세기 전후 이씨의 창작으로 알려진 180권 분량의 소설로, 장서각본과 규장각본이 있다.

9) <임씨삼대록>은 <성현공숙렬기>의 연작으로 완질 이본에는 장서각본 39권 39책본과 40권 40책본이 있고, 40권본을 선본으로 보고 있다. 이 작품은 온양정씨 필사본 <옥원재합기연>의 권14 표지 안쪽에 작품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동안 <옥원재합기연>의 소설목록은 1776년~1790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았는데, 최근 1847년 이후로 추정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동욱, 「서울대본 <옥원재합기연> 소재 소설목록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연구』 47, 2015, 279~310쪽.

2. 선협(仙俠)의 개념과 선협형 인물 유형

선협(仙俠)의 의미를 구성하는 기본 개념은 선(仙)과 협(俠)이다. 신선(神仙)이나 신인(神人)이라고도 하는 선(仙)은 신(神)으로 대표되는 천상적 존재와 인(人)으로 대표되는 지상적 존재의 사이에 있는 경계적·초월적 존재를 말한다. 선(仙)은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의 문학과 종교, 생활과 문화의 기저를 이루어 온 주요 관념이자 원형적 사고이다.

그러한 까닭에 역사적으로 각축하며 경쟁한 유교·불교·도교 모두 선(仙)을 핵심으로 하는 신선사상에 대해서 만큼은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성리학을 완성한 주자는 〈무이구곡가〉에서 무이구곡을 신선이 사는 곳으로 묘사했고,¹⁰⁾ 한반도의 경우 신라의 최치원부터 조선의 유학자가 수많은 유선시사(遊仙詩辭)를 지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선(儒仙)의 결합은 자연스럽게 인식되었다. 불교와 도교가 신선사상을 수용하여 조화시키는 습합(習合) 현상은 더 일반적이었다. 선승(仙僧)이나 도선(道仙)이라는 용어가 거부감없이 유통된 것은 이를 보여준다. 특히 도교는 그 형성 과정에 신선사상의 영향이 지대했으므로, 후대에는 일반적으로 선도(仙道)를 도교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다.

선협(仙俠)의 또 다른 구성요소인 협(俠)은 갑골문으로 俠이다. 이것은 힘 있는 한 사람이 약한 두 사람을 옆에 끼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청나라 은옥재(殷玉裁)는 『설문해자주(說文解字注)』에서 협(俠)을 ‘호협하다’는 뜻의 빙(俁)으로 풀이했다.¹¹⁾ 사마천은 『사기(史記)』 「유협열전」에서 “기운을 가지런히 세우고 위엄으로 복을 짓고, 사적인 사귀를 맺어 세상에서 강함을 세우는 자를 ‘유협’이라 한다”¹²⁾라고 했고, 「계포란포열전(季布欒

10) 주희, 〈무이구곡가〉, “武夷山上有仙靈, 山下寒流曲曲清.”

11) 許慎 撰, 殷玉裁 注, 『說文解字注』, 中州古籍出版社, 2006, p.363.

12) “立氣齊, 作威福, 結私交, 以立彊於世者, 謂之游俠.”

布列傳)에서는 “서로 믿는 것을 임(任)이라 하고, 옳고 그름의 입장이 같은 것을 협(俠)이라 한다. 이른바 ‘권도를 주와 리에 행하고, 힘으로 공후를 꺾는다’는 것이다.”¹³⁾라고 했다. 『자원(字源)』에서는 협(俠)을 ‘재물을 가 베티어 여기고 의리를 좋아하며 어렵고 위태한 처지의 사람을 구제하고 공정하지 않은 것을 보면 가만두지 않는 기개 있는 사람’으로 설명한다.¹⁴⁾

호협, 기개, 강함, 권도, 힘 등의 의미소를 갖는 협(俠)은 주로 무인(武人)의 언행 특성과 연결되며 무협(武俠)의 이미지를 갖는다. 한비자(韓非子)는 “유자(儒者)는 문(文)으로 법을 어지럽히고, 협객은 무(武)로 금기를 범한다.”¹⁵⁾라고 했고, 사마천은 “지금의 유협은 그 행실이 비록 정의(正義)를 따르지 않지만, 그 말은 반드시 진실되고, 그 행동은 참으로 용감하다.”라고¹⁶⁾ 했다. 이를 통해 협(俠)이 문유(文儒)와 구별되고 문유 기반의 주류 법도[正義]에 어긋나는 것을 일컫는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원래의 뜻에 담긴 구제와 용맹과 헌신 등의 이미지는 계승되어, 남을 돕는 말의 신실(信實)과 행동의 과단(果斷)이 긍정적으로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선협(仙俠)은 신·인(神人) 간의 경계적·초월적 존재로서 유·불·도와 자유롭게 결합하며 호사(豪士)와 무인(武人)의 행동 특성을 갖춘 존재라고 하겠다. 단순히 심성 수련을 위해 선도를 닦는 것은 선협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협은 사상적 지향에 따라 유협(儒俠), 승협(僧俠), 도협(道俠)으로 나눌 수 있다. 문무(文武)를 기준으로 무협과 문협(文俠)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문협은 문인이지만 무인의 기질이 있으며 수련을 통해 초월자가 되는 서사적 속성을 지닌다. 유협(儒俠)은 기본적으로 문인의 속

13) “相與信爲任，同是非爲俠，所謂權行州里，力折公侯者也。”

14) “輕財好義，濟人之難，助人之危，抱打不平的豪士。”

15) 사마천, 『사기(史記)』 권124, 「유협열전(游俠列傳)」, “韓子曰，儒以文亂法，而俠以武犯禁.”

16) 사마천, 위의 글, “今游俠，其行雖不軌于正義，然其言必信，其行必果.”

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협의 다수가 문협의 속성을 포함한다.

초월자가 되기 위한 수련을 기준으로 하면 내단 수련과 외단 수련의 서사로 분류된다. 수련에는 보통 도교 수련 방식이 차용되는데, 외단 수련은 단약(丹藥)을 복용하는 수련의 서사이고, 내단 수련은 체내에 단(丹)을 만드는 서사를 중심으로 한다. 그 외에 천서(天書)로 불리는 도교 경전을 읽는 것만으로 초월성을 획득하는 서책 수련과 육체적 연마가 강조되는 도술 수련으로 서사를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을 적용하고 소설의 전통적 인물 구도를 반영하여 국문 장편 소설에 등장하는 선협형 인물의 하위 유형을 분류하면, 작품 내 인물 구도·기질과 활동의 성격·수련 방식에 따라 선인형과 악인형, 유협형과 승협형과 도협형,¹⁷⁾ 문협형과 무협형, 내단형과 외단형, 서책수련형과 도술수련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선인형과 악인형은 다소 형식적이고 편의적인 분류로서, 인물이 가진 서사적 진실이나 의리의 성격에 대한 절대적 가치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선악의 판단과 해석에는 시대마다 달라지는 권력 관계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유협과 승협과 도협, 문협과 무협, 내단과 외단의 속성은 배타적이지 않고 한 인물 내에 공존한다. 그러한 까닭에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그려지는지에 따라 인물을 분류하거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인형 중에는 유협과 도협의 속성을 결합한 경우가 많고, 악인형 중에는

17) 선협은 주로 도협의 성격을 띠는데, 이는 도교보다 불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컸다는 점과 머리를 깎는 일이 당대에 통용된 신체 윤리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나타낸다. <임화정연>의 석가월은 도교에 입문하여 도사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부모가 준 육신을 훼손할 수 없어 머리 깎는 여승이 아니라 유발승인 도사가 되겠다고 한다. <임화정연>, 권58, 14~15쪽, “첩의 임의 세상 물욕을 샅하고 남녀 정욕의 뜻이 스연호오니 맛당이 단발위리힐 거시로더 몸이 비록 하류의 나시나 뜻인 즉 스족을 썩고져 호오미 부모 유테를 츠마 훼손치 못홀디라 세상의 유발승이 되고즈 호오미 스스로 도복을 꺾초고 늙흔 스승을 어더 도를 비화 청유흔 산간의 붉고즈 호미 원이 러니”

도협과 승협의 특징을 결합한 경우가 많다. 또한 선인형 주인공에는 서책만으로 도술을 익히는 경우가 다수 보이고, 선인형 보조인물이나 악인형 인물에는 서책수련과 도술수련을 병행하거나 도술수련만 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유형을 고려할 때 <완월회맹연>의 진소아와 <임씨삼대록>의 묘월·능운·옥선군주·옥경군주·남영설은 악인형·도협형·무협형·내단형·도술수련형에 속하고, <임화정연>의 조옥연은 선인형·도협형·무협형·외단형·서책수련형에 속하며, 석기월은 선인형·도협형·무협형·외단형·도술수련형에 속한다. <명행정의록>의 설소아는 선인형·도협형·무협형·외단형·도술수련형이고 상빙심은 선인형·도협형·무협형·내단형·도술수련형이라고 할 수 있다.

3. 역사 기반 선협형 악인 여성의 존재 서사

국문 장편소설의 선협형은 중심인물과 보조인물에 두루 나타나고, 그들의 존재서사를 구성하는 서사문법도 다양하다. 그 가운데 이 글에서는 선협형의 특징이 선명한 인물군, 즉 역사적 내력을 지닌 악인형 여성 인물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¹⁸⁾ 역사 기반 선협형 여성의 존재서사는 현실의 역사 맥락을 구성요소로 삼는다. <완월회맹연>의 진소아, <임씨삼대록>의 묘월·능운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존재서사를 ‘이미지, 서사, 담론’의 층위에서 살펴보면 ‘도선과 무협의 이미지, 역사의 패자 서사, 반역의 의리 담론’이라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18) 이 글은 선협형에 대한 시론으로서, 선협형의 특징이 선명한 인물군을 대상으로 입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논의 범주를 확장하고자 한다.

1) 도선과 무협 이미지: 주변부 속성의 결합

도선과 무협의 이미지는 대부분의 선협형 인물이 공유하는 특징이다. 도선적 성격은 신선(神仙)과 도사(道士)와 선승(仙僧)의 특성을 아우르고, 무협적 성격은 신행(神行)과 법술(法術)과 무공(武功)의 요소를 포함한다. 진소아와 묘월과 능운도 도선적이고 무협적인 속성을 기본 이미지로 하여 형상화된다.

㉠ “저 산을 넘어가면 청선관과 태청관이 있습니다. 태청관 수도사(首道士)의 법호(法號)는 태허자이고, 성명은 장손활이며, 청선관 법사(法師)의 별호는 운화선이고 이름은 진소아인데 -중략- 신이한 행적과 법술이 만고의 독보적입니다. 태허자의 신법(神法)은 거의 운화선을 따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생각이 외람되고 분수를 잊어 천하의 억만 중생을 모아 자기 무리로 삼으려고 하며, 남녀귀천을 막론하고 이곳에 오는 사람은 모두 데려다 제자로 삼습니다.”¹⁹⁾

㉡ 춘파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요도의 신통함이 천 리를 보는 눈과 귀가 있어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볼 뿐 아니라 장자의 사상을 겸했으니 소저의 뜻을 행복받지 못하면 악착같이 해치려 할 뿐 아니라 좋게 음실(陰室)을 벗어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니 쓸 만한 계교가 없사옵습니다.” 경과가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운화선이 스스로 신선술을 배웠다고 하고 요술이 헤아릴 수 없기는 하지만 여러 제자를 다 부모 형제도 모르게 낚아채 오거나 아니면 위협하여 데려와 약을 캐고 도를 가르치니 깊은 산 험한 골짜기에서 오랜 시간 인간 세상을 떠나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르기를 희망하며 도교의 경전인 『황정경』을 읽어 마음은 불 꺼진 재와 같고 몸은 다 말라 버린 나무와 같은 경지에 오르면 부모와 형제를 생각하는 정은 자연히 잊

19)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5, 23~24쪽. 현대역은 완월회맹연 번역연구모임, 『현대역 완월회맹연』 1~3, 휴머니스트, 2022를 참조하고, 필요에 따라 표현을 수정하였다. 이하 동일.

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속세에 다시 뜻을 두고 신선술을 배운다 해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난새와 학을 타고 천상 백옥경에 오르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더구나 날마다 약재를 캐는 피로움과 환약을 만드는 고생을 하지 않으면 스승의 포악한 호령을 면하기 힘드니 쓰고 마른 풀로 무슨 배를 채우며 풀뿌리와 베로 무슨 몸을 가리겠습니까? 관아의 심부름꾼이 엄한 주인을 모셔 밤낮으로 마음을 놓지 못한다 해도 엄연히 삼강오륜의 도리가 있는데 청선관 여도는 삼강과 오류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석가의 도를 숭상하여 불도라 하기에는 삭발하고 세상을 버린 후 포단에 앉아 수도하여 영원한 삶을 구하는 일이 없으며 법전에 모든 부처와 성인을 앓혔으며 모든 여도사가 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도가라고 하기에 인간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로 세상의 변화한 염려를 꿰지 못해 먹고 입는 피로움조차 걱정거리를 삼으니 어디서 신선의 음료를 맛보겠습니까? 죽어도 몸이 그대로여서 백골이 썩지 않고 살아도 인간 세상과 소식을 끊었으니 저세상 사람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살아 있는 부처나 신선의 당치도 않은 피로움이 비할 데 없으니 어찌 슬프고 한스럽지 않겠습니까? 저마다 원한을 풀어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기를 원하니 요도의 심복 제자 3~4명은 달래기 어렵겠지만 그 외에는 묘혜선이 흠어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일시에 흠어지게 한 후에는 빈 도관을 혼자 지키는 것이 무의미하여 분명 이곳을 떠날 것이니 그때면 소저께서 돌아가실 수 있을 듯합니다.”

- ㉔ 운화선이 여동(女童)을 보내 말을 전했다. “빈도(貧道)가 하늘을 잠깐 살펴보니 규성과 문월성이 계행산으로 향하여 규성은 존사(尊師)의 주성(主星) 살기에 둘러있고 문월성은 빈도의 주성 살기에 에워싸여 있으니, 이는 매우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빈도가 별자리로 점을 쳐 보니 규성은 정씨 집 아들 정인광이고 문월성은 정씨 집 딸 정월염으로서 바람을 타고 표류하여 내일 사시(巳時)와 오시(午時) 사이에 취운암 모래밭에 이를 것입니다. 존사와 빈도가 밤새 축원하여 어진 제자 연기를 바라던 바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규성과 문월성을 우리 두 관(觀)에서 나누어 둔다면 우리 도문(道門)의 큰 보배가 될 것입니다. 내일 각별히 잘 지켜서 마땅히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태허자가 크게 기뻐하여 운화선의 생각이 일반 사람은 미치지 못할 정도라고 일컫고 다음날 꼭 지키어 데려오자고 약속했다.²⁰⁾

㉠은 진소아의 제자 경과의 말이다. 진소아의 경우, ‘운화선’이라는 별호와 ‘청선관’이라는 도관의 이름에서 도사의 면모가 드러나고 ‘법사’라는 칭호에서 선승적 면모가 나타난다. 그는 신행과 법술이 독보적이어서, 남성 도사들을 이끄는 태청관의 우두머리 태허자도 미치지 못할 정도라고 그려진다.

㉡은 정월염의 시녀 춘파와 그 동생이자 진소아의 제자인 경과가 진소아를 물리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하는 말이다. 그들은 진소아가 천리를 보고 듣는 눈과 귀를 지녔고,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는 신통함이 있으며, 장자(莊子)의 사상과 신선술을 익히고, 도교 경전인 『황정경』을 읽으며, 채약(採藥)과 환약(丸藥) 제조와 도술에 뛰어나고, 부처를 모셨지만 식발하지 않고, 도교를 배우지만 세속의 염려를 끊지 못한다고 했다. 이 부분에서 진소아는 신선과 도사와 선승의 속성이 혼재된 캐릭터로 묘사되고 있다.

㉢은 진소아가 태허자에게 전하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진소아가 천문(天文)에 능통하여 태허자도 감복할 정도임이 드러난다. 그 외에도 진소아는 경서(經書)와 도법(道法)을 외우고 단약(丹藥)의 조제와 감식에 뛰어나며 보검(寶劍)을 지니고 새(鳥)로 변신할 수 있으며²¹⁾ 독화살을 사용하는 인물로 묘사된다.²²⁾

〈임씨삼대록〉의 묘월과 능운도 도사와 법사를 겸하고 법술과 무공을 화려하게 구사하는 인물로 나온다. 태항산 구도동의 법사 묘월은 서촉 청성

20)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5, 31~32쪽.

21)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14-15.

22)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109.

산 금선법사의 제자이고, 서촉 월출암의 여승 능운은 묘월의 제자이다. 묘월은 특정인을 미워하게 하는 약물인 미혼수를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의 모습을 변하게 하며, 자신은 파랑새 등으로 변신이 가능하다.²³⁾ 능운 또한 변신술이 가능하여 파리나 새로 변신하고, 개용단·도봉잠·회면단 등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묘월과 능운은 무학과 무공에 뛰어나다. 이러한 특징은 진소아와 비교할 때 더 잘 드러난다. 진소아의 무공 이미지는 10년 동안 수행을 하여 신행과 법술이 3배가 되었다는 진술과²⁴⁾ 보검을 지니고²⁵⁾ 독화살을 쓰는 장면으로²⁶⁾ 구성된다. 묘월과 능운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승(師承) 관계의 계보를 지니며 자신들의 무공과 무학을 중심으로 문파가 이어지는 과정을 구체화한다. 작품 내에서 상당히 큰 비중으로 높은 수준의 도술을 구사하는 묘월은 금선법사에게 『보책』을 전수받아 변화술을 익혔고, 그것을 다시 능운과 옥선군주·옥경군주·남영설에게 전수하는 지위에 있다.

진소아와 묘월의 형상을 구성하는 도선적이고 무협적인 이미지는, 〈완월회맹연〉과 〈임씨삼대록〉의 창작과 독서가 이루어진 조선 후기의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볼 때 주변부적 속성을 대변한다. 박희병은 조선의 유자(儒者) 지식인인 사대부가 공유하는 생활의식과 문화인식을 ‘문화틀’이라

23)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약물은 설희광이 임월혜를 미워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고, 악인형 인물 옥경군주를 변신시켜 회왕의 양녀가 되게 하고 자신은 파랑새로 변신해 임월혜를 납치하려 한다.

24)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109, 1~2쪽, “십년 전 홀연 신인이 하강하야 태청관 슈도 태허즈를 죽이고 관중을 당멸하며 청성관 슈도 운화선을 휘푼허미 운화선이 소혈을 일코 간 바를 아디 못허리러니 슈년 전의 홀연 계형산 뒤허 청성산이란 상봉의 대찰을 일우고 호왕 복원시라 호고 우왕 계청관이라 하며 녀도 삼천여 인을 거느려 슈도 허미 신행 법술이 전일의 세 번 더오다 허더니”

25)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15.

26)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109, 60쪽, “운해 대로하야 삼쇼저를 맞지고 덩히 살허 독을 불나 뵈고져 허더니”

는 용어로 설명하며, 조선의 문화들에 ‘유교’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고 했다.²⁷⁾ 특히 조선 후기는 중심적 사회·문화 권력이 유교를 기반으로 공고화되었다. 17세기 중·후반에 발생한 두 차례의 거센 예송논쟁(禮訟論爭)과 사문난적(斯文亂賊) 사건 등을 거치며, 성리학적 시각으로 더욱 견고해진 사족(士族) 중심의 사유와 질서가 조선 후기의 주류를 이룬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선과 무협의 결합은 사족의 주류적 정의(正義)를 벗어난 “不軌于正義”의 이미지를 내포하게 된다.²⁸⁾

2) 역사의 패자 서사: 타자의 기억 소환

소설 속 인물의 서사적 비중과 분량은 작품 안에서 묘사되는 기록의 편 폭과 비례하지 않는다. 어떤 인물은 기술되는 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묘사하는 단 한 줄에 수십, 수백 권의 네러티브를 소환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역사 기반의 인물이다. 독자는 역사 기반의 인물이 호명되는 순간, 그 이름의 뒤를 따르는 풍부한 이야기를 함께 읽게 된다. 역사 기반의 인물에는 그 스스로가 역사적 인물인 경우가 있고, 그의 조상이나 가문 구성원이 역사적 인물인 경우가 있다. <임경업전>의 임경업(1594-1646)이 전자에 해당하고 <박씨전>에서 이시백(1581-1660)의 아내로 나오는 박씨는 후자에 해당한다.

도선과 무협의 이미지로 그려지는 진소아와 묘월, 그리고 능운은 모두 현실의 역사 맥락을 존재서사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 인물들이다. 묘월과 능운이 등장하는 <임씨삼대록>은 명나라 3대 황제 성조(成祖) 영락제(1402-1424)부터 5대 선종(宣宗) 선덕제(1426-1435)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진소아가 등장하는 <완월회맹연>은 6대 영종(英宗) 정통제(正統帝,

27) 박희병,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돌베개, 2008, 5~69쪽.

28) 사마천은 유협에 대해 “그 행실이 비록 정의(正義)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때의 정의는 유교적 질서를 의미한다. 사마천, 앞의 글, “今游侠, 其行雖不軌于正義.”

1435-1449)에서 9대 헌종(憲宗) 성화제(1457-1487)까지를 배경으로 한다. 두 작품의 시대는 각각 명나라가 세워진 1368년(홍무 원년)부터 대략 50년에서 100년을 전후로 한 때이다.

이 시기를 개관하면, ‘정난의 변’으로 인한 건문제의 퇴위, 영락제의 몽골 정벌과 북경 천도, 정통제가 오이라트 몽골의 포로가 된 ‘토목지변’, 그 사이에 발생한 경태제의 등극, 이후 정통제의 귀환과 복위, 그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의 대립 등으로 요약된다. 이 시기 명나라는 밖으로 막북 몽골과 오이라트 몽골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았고 안으로도 정치적 안정을 이루지 못했다.²⁹⁾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명나라의 황권을 공고히 하려는 입장과 주씨 황가의 정통성에 저항하는 입장이 경합하는 상상은 설득력을 갖는다. 두 작품은 주씨 황가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존재했을 개연성이 높은 시대를 배경으로 삼은 것이다. 서로 다른 목소리는 서로 다른 기억을 전달한다. 이 시기에 가능했을 목소리들 중 하나는 원말에 막강한 세력으로 주원장을 압도했던 군웅(群雄)들에 대한 것이다. 진소아와 묘월과 능운은 그러한 군웅의 후손으로, 역사적으로 패배한 조상을 비운의 영웅으로 기억한다. 조상의 정치적·역사적 위상에 대한 복권과 부흥을 소망하는 목소리로 그들의 존재서사가 구성되는 것이다.

〈완월회맹연〉의 진소아는 “진우량의 손녀”³⁰⁾이다. 진우량(陳友諒, 1316-1363)은 원나라 말엽 부패한 정부에 반대하여 군사를 일으킨 군웅 중 하나이다. 그는 1360년에 강주를 근거로 한(漢)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되었으나 1363년 주원장에게 패하여 죽었다. 진우량은 결과적으로 역사의 패자가 되었지만, 주원장이 원나라 조정과 나란히 언급할 만큼³¹⁾ 원말의 막강한

29) 데라다 다카노부, 서인범·송정수 역, 『중국의 역사, 대명제국』, 혜안, 2006, 63~127쪽.

30)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5, 23~24쪽.

31) 주원장은 조선에 보낸 조서에서 “서쪽으로 한왕(漢王) 진우량을 토벌하고, 동쪽으로

세력이었다.

㉔ (진소아가 말했다) “부군(府君, 진우량)께서는 재덕을 타고 나 진실로 온 세상을 다니며 천하를 남에게 사양하지 않을 분인데 천명(天命)을 얻지 못해 명 태조가 천하를 통일하였다. 이로 인해 진씨 종족이 조선의 작은 나라에 내쳐졌고, 이후로는 다시 기운을 떨쳐 선인(先人, 진우량)의 구천에 맺힌 한을 풀 길이 없게 되었다. 이 원통함과 지극한 한을 살아서 풀지 못한다면 천지는 다할 날이 있어도 이 아픔은 끝날 기약이 없을 것이다. 나는 선도(仙道)에 미혹된 것이 아니라 일월수(日月數)를 으뜸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는 오랜 세대를 기다려서라도 주씨 가문의 운수가 기우는 때가 오면 원수의 씨를 모조리 없애 만리(萬里)에 이어진 산에 눈물이 뒤덮이게 하고 우리 오라비를 조선에 내친 원한을 풀고자 함이었다. 상고시대 여외를 이어 생활을 만들고 큰 덕과 높은 공업을 이루어 천하에 퍼뜨리고 온 세상을 어루만져 백성들로 하여금 <격양가>를 부르고 요순의 밝은 다스림을 즐기게 하며 나도 일생을 즐기며 천년만년 불사불멸하려는 것이다. 녹녹한 도고(道姑)가 되어 심산(深山)에서 요초(妖草)를 캐고 궁협(窮峽)에서 맥숙(麥粟)을 먹어 양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³²⁾

㉕ (묘혜선이 말했다) “운화선의 더 깊은 뜻은 영웅 진우량이 천하를 얻지 못한 원통함이 평생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불측하고 음흉한 생각으로 자칭 신선(神仙)의 무리라고 하면서 남녀를 많이 모아 결국은 국가에 해를 끼치고자 하는 것이니 장손활이 아무리 사나워도 운화선의 그 깊고 흉악한 뜻에는 미칠 수 없습니다.”³³⁾

오왕(吳王) 장사성을 고소성에서 결박하고, 남쪽으로 민월(閩越)을 정벌하여 팔번(八蕃)을 평정하고, 북쪽으로 호군(胡君)을 몰아내 화하(華夏)를 수정하여 중국의 옛 강토를 회복했다.”라고 했다. 번역은 안정복, 『동사강목』, 제15하, 하4월, 고전번역원을 참조하고 일부 표현은 수정했다. 이하 동일.

32)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14, 41~42쪽.

33)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14, 34~35쪽.

“진우량의 손녀” 진소아가 수행을 통해 신술(神術)을 연마하고 뛰어난 제자를 거두려고 애쓰는 이유는 조부 때문이다. 진소아는 진우량이 뛰어난 영웅이었음에도 ‘천명(天命)’을 얻지 못해 ‘천하(天下)’를 주원장에게 빼앗긴 원한을 갚기 위해 신술(仙術)과 무예를 익힌다. 이때 진소아가 기억하는 진우량의 서사는 주원장의 패자(敗者)나 적국(敵國)이 아니라 시대를 만나지 못한 영웅의 이야기이다. 이것은 명나라 황실이나 정한 집안으로 대표되는 충신 가문 사람들에게는 타자의 기억이고 망각된 서사이다.

진소아의 기억에서 진우량은 천하를 다스리기에 충분한 재덕을 지닌 인물이다(㉔). 진우량의 영웅적 이미지는 진소아가 이끄는 집단을 통해 소환되고 전승된다. 진소아를 배신하게 되는 제자 묘혜선마저도 진우량을 “영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㉕). 이처럼 〈완월회맹연〉이 진우량의 서사를 차용하는 방식은 영웅적 역량이 뛰어났지만 천명을 얻지 못해 이세민에게 천자의 자리를 양보했던 협객 규염객(虯髯客)의 서사를 환기한다. 양보가 아닌 패배라는 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진우량에 대한 기억의 흔적이 소설에 새겨진 것은 진우량의 일족이 조선으로 왔다는³⁴⁾ 역사 기록과 더불어, 진우량의 서사가 영웅 서사로 전승되는 맥락이 18세기 이후 조선에서도 존재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완월회맹연〉은 진소아라는 허구적 인물을 진우량의 손녀로 설정하여, 수만 마디의 설명이 없이도 수백 년 역사의 맥락과 네러티브를 소환한다. 역사 이야기를 선행작으로 삼고 있는 방식이다. 진소아의 존재서사를 구성하는 역사적 사실은 ‘그가 왜 명나라 황실과 주류 질서에 맞서는가’라는 점에 타당성과 설득력을 부여한다. 그의 서사는 승자의 관점에서 기술되는 과거의 역사를 실패한 영웅 쪽의 기억으로 소환한다. 이러한 소환 방식은 〈임씨삼대록〉에서도 나타난다.

34) 『태종실록』 윤3월 18일, 고전번역원.

㉞ 묘월의 초사는 다음과 같았다. “식견이 낮은 승인 저 묘월은 본래 장사성(張士誠)의 딸입니다. 제 부친이 처음에 태조황제와 나란히 세상에 서서 드넓은 천하를 다투다가 명나라 황실이 하늘 가득한 복으로 온 세상을 통일했으니 세상의 군웅들이 누군들 죽지 않았겠습니까? 저의 부친 또한 나라가 망하고 신하도 죽으니 그때 제 나이가 불과 서너 살로 강보의 아이였습니다. 장차 나라가 망하고 집이 망하니 혈혈단신의 어린 여자가 누구를 의탁하겠습니까? 죽을 것이 분명한데, 요행히 유모가 저를 거두어 산사를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유모마저 죽고 십여 세의 여자가 사방에 의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촉 청성산에서 수도하던 금선법사가 저를 거두어 제자로 삼아 천만 가지 변화를 가르쳤습니다. 재주를 다 배우고 나자 나이가 차고 지각이 났습니다. 문득 부모의 절친지원을 갚고자 하여 드디어 스승을 배반하고 천하를 떠돌며 온 나라를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다 능운을 만나 제자로 삼고 술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능운의 근본을 물으니 그는 진우량(陣友諒)의 손녀였습니다. 또한 명나라 황실에 원수를 갚고자 하여 저와 의기상합하였습니다. 하산하여 산동에 가서 한왕을 사귀며 목지형을 만나 가만히 초왕에 왕래하여 허다 괴이한 변을 저지르고 또 진궁에 가서 한날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남매를 갔다가 남씨 집안에 버리게 하였습니다. 능운은 임상부에 가 변란을 일으켰으나 초왕의 부중 사람이 다 신성한 사람이라서 여러 계책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필경은 귀신 굴에 떨어져 죽게 된 것을 제가 짐작하고 구해내자 더욱 일을 도모하는데 힘썼습니다. 세 권 비서(秘書)를 남씨 부중의 연랑에게 주고 옥경으로 회왕의 딸을 삼아 함께 임씨 집안을 없애려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 계책을 꾸몄습니다. 옥경은 병부상서 설희광을 사모하여 사혼(賜婚)의 교지를 얻고 옥선은 이부상서 임창홍을 사모하여 사혼의 교지를 각각 얻어 시택에 들어가자 기괴한 변란이 이리이리하다가 일이 다 낭패가 되자 달아나 한왕을 띄어 병사를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옥선은 이리이리하여 융왕에게 가 오랑캐 왕비 언지가 되었습니다.”³⁵⁾

35) <임씨삼대록> 권25, 67~70쪽; 서정민 역, 『임씨삼대록』 4, 소명, 2010, 38~39쪽.

㉔ 능운의 초사는 다음과 같았다. “저의 할아버지가 명나라 황실에 의해 죽었기에 저의 아버 또한 원방을 떠돌다가 마저 죽었습니다. 제가 어찌 원한이 없겠습니까? 이러므로 임씨 가문을 없애고자 하는 옥선과 설씨 가문을 해하려 하는 옥경과 동모하여 임씨, 설씨 두 가문에 원수를 갚고 명나라 황실을 없애고자 허다 계교를 이리이리 시작하였다가 계책을 이루지 못하고 잡혔습니다.”³⁶⁾

〈완월회맹연〉이 진소아를 통해 진우량의 서사를 소환했다면, 〈임씨삼대록〉은 묘월을 통해 장사성(張士誠, 1321~1367)의 서사를 소환하고 능운을 통해 진우량의 서사를 〈완월회맹연〉과 공유한다. 〈임씨삼대록〉에서 묘월은 장사성의 딸이고 그 제자 능운은 진소아와 마찬가지로 진우량의 손녀로 나온다. 묘월의 부친 장사성도 진우량과 함께 원말에 활약한 군웅의 하나이다. 그는 반정부의 기치를 내걸고 소주(蘇州)에 도읍하여 대주국(大周國)을 세운 후 스스로 오왕(吳王)이라고 했다. 장사성도 결국은 주원장에게 패했지만, 그 세력은 상당하였다.

역사에서는 진우량과 장사성 사이에 또 다른 대결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임씨삼대록〉에서는 두 영웅의 후손이 연대하여 명나라 황실에 저항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장사성의 딸 묘월이 진우량의 손녀 능운에게 신술을 가르치며, 스승과 제자로 인연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서사는 주원장 가문에 황권과 천명을 빼앗긴 패자들에게 대한 기억이 단독적·일시적이 아니라, 대를 이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진소아와 묘월과 능운으로 그려지는 역사 기반의 선협형 인물은 단순한 악인형 조력자가 아니라, 그 내력의 근거를 명나라 태조와 자웅을 겨루며 중원을 두고 경쟁했던 현실 인물에 대한 서사적 기억에 두고 있다. 그것은

현대역은 김지영 외 역, 『임씨삼대록』 1-5, 소명, 2010을 참고하고 필요한 경우 표현을 수정했다. 이하 동일.

36) 〈임씨삼대록〉 권25, 70~71쪽; 서정민 역, 『임씨삼대록』 4, 소명, 2010, 39쪽.

승자의 기억이 아니라 패자의 기억이고, 명나라 황실로 상징되는 ‘지금 이곳’을 관장하는 힘 있는 주체에게는 망각된 타자의 기억이다. 이처럼 작품에 새겨진 타자의 기억은, 비록 작가가 의식하고 의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소설 향유자에게 주류와는 다른 목소리를 발견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3) 반역의 의리 담론: 탈관계와 ‘경계-성원’의 지향

진소아 등이 대표하는 인물군은 중심인물과 대등한 대항세력으로서 유교적 기반에 대해서는 도선(道仙)으로, 문인 중심 사유에 대해서는 무협(武俠)으로 대항한다. 작품에서 이들은 악인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선과 악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특정한 입장에서 호명(呼名)이고, 그 호명은 주류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³⁷⁾ 이 점을 생각하면, 진소아 등을 악으로 호명하는 것은 작품이 긍정적으로 그리는 중심인물의 목소리가 역사의 승자 편에 있고, 진소아 등은 승자가 망각하고 싶은 패자의 기억을 소환하는 데 서사적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진소아 등의 행동에는 부모와 가족을 죽인 대상에 대한 복수라는 도덕적 이유가 있다. 이것은 협객의 서사에서 중요한 명분이 되는 동시에, 유교 사회에서도 기리는 덕목이다. 이후 등장하는 <검녀(劍女)> 계통의 서사와 <신여취전(申汝偶傳)> 등에서 이러한 덕목의 계승을 확인할 수 있다.

<완월회맹연>과 <임씨삼대록>이 향유된 조선 후기에 진소아 등의 복수가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수의 대상이 소위 “재조지은(再造之恩)”을 베푼 명나라 황실이기 때문이다. 조선은 명나라가 패망한 후에도 여전히 공적으로는 숭명(崇明)의 의리를 강조했다. 숭명을 지지하

37) 비이기적 행위를 선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 행위에서 이익을 얻는 자들의 입장에서 칭찬하며 선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기원한다는 주장에 대해 칸트는 그것을 권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정으로 심화했다. 칸트, 강영계 역, 『도덕의 계보학』, 지만지, 2009, 32~34쪽.

는 입장에서는 명나라와 대적했던 군웅의 후손이 내세운 복수의 명분은 정의(正義)를 거스르는 악행이 된다. 즉, 진소아·묘월·능운의 모든 행위는 의리를 해치는 비행(非行)이자 반역(反逆)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진소아 등은 누구보다도 의리를 중시한다. 선협형 인물을 구성하는 주요 속성 중 하나인 ‘협’이 ‘의리’ 담론과 밀접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마천은 ‘유협’을 통해 ‘협’의 의리가 지닌 속성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의 유협은 그 행실이 비록 정의(正義)를 따르지 않지만, 그 말은 반드시 진실되고 그 행동은 참으로 용감하며 이미 약속한 일은 반드시 정성을 다한다.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남의 고난에 달려가며, 달려간 후에는 자신의 생사와 존망을 돌보지 않는다. 자기의 능력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공덕을 사랑하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라고 했다.³⁸⁾ 이들은 유교 기반의 주류적 질서와 규범을 거부하지만, 말에 신의가 있고[信] 행동에 과감하며[勇] 약속한 일에 정성을 다한다[誠]. 신(信)·용(勇)·성(誠)의 태도로, 관계 맺은 대상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과 능력을 아끼지 않으며, 성공한 후에는 치사(致辭)하지 않는다. 이것이 승명을 내세우는 사족(士族) 집단과 다른, 협(俠)의 의리이다.

선협형 인물의 의리 담론은 <임씨삼대록>에서 잘 드러난다. 묘월의 스승 금선법사는 하루아침에 나라와 집안이 망하고 부모와 형제를 잃은 어린 묘월을 거두어 정성으로 기른다. 묘월도 의지가 없는 어린 능운을 제자로 거두어 보살피고 교육하며, 능운이 귀신굴에 빠져 죽게 된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구해낸다. 또, 묘월과 능운이 옥선군주와 옥경군주를 돕기로 한 후에는 죽을 때까지 서로 의지하고 안위를 함께 하며,³⁹⁾ 진심을 다해 법술

38) 사마천, 『사기(史記)』 권124, 「유협열전(游俠列傳)」, “今遊俠, 其行雖不軌於正義, 然其言必信, 其行必果, 已諾必誠. 不愛其軀, 赴士之阨困, 既已存亡死生矣. 而不矜其能, 羞伐其德.”

39) 최수현(2017), 앞의 논문, 147쪽.

을 전수하여 그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묘월의 또 다른 제자인 남영설도 자신의 도우(道友)라 할 수 있는 옥선군주의 딸을 거두어 돌본다. 최수현은 이러한 인물 간의 연대를 악인의 인간적 면모라고 평가하기도 했다.⁴⁰⁾

묘월과 능운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관계에는 신뢰와 정성을 기반으로 한 ‘협’의 의리가 작동한다. 그들은 “옳고 그름의 입장이 같은 협[同是非爲俠]”으로서, 명나라의 멸망을 공동의 선(善)으로 생각한다. 묘월은 초사(招辭)에서 자신과 능운이 억울하게 죽은 조상의 복수를 위해 명나라 황실을 전복하겠다는 목표로 의기투합했음을 밝힌다. 그들이 제자와 도우(道友)를 모아 무리를 이루고 법술을 가르치는 목적이 부모의 원수인 명나라를 없애기 위해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선협의 의리는 주류의 지배적 정의(正義)를 거부하기 때문에 유교 중심의 권력 구조 안에서 부정의(不正義)와 악(惡)과 반역(反逆)의 서사로 기술되기 쉽다. 실제로 묘월 집단의 결속과 의리는 명나라 황실과 명나라에 충성하는 주인공의 시선에서 볼 때 ‘반역’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반역의 의리 담론 안에서, 묘월과 능운은 더 이상 보조인물이 아니라, 주인공 반대 진영의 인물들을 이끄는 중심인물이 된다.

◎ (묘혜선이 말했다.) 스승 운화선 진소아가 평소 괴로워하는 것은 정기를 온전히 가진 사람입니다. 소저와 공자의 당당한 정기를 모르지 않으면서도 제자를 삼아 도관에 두었으니, 봉황이 와서 춤추고 황룡이 나타나는 상서로움을 이루어 학과 난새가 끄는 신선의 수레를 타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운화선의 더 깊은 뜻은 조상인 영웅 진우량이 천하를 얻지 못한 것과 같은 원통함이 평생 풀리지 않았기에 아주 불측하고 음흉한 생각으로 자칭 신선의 무리라고 하면서 남녀를

40) 최수현(2017), 위의 논문, 149~150쪽.

많이 모아 결국은 국가에 해를 끼치고자 하는 것이니 장손활이 아무리 사나워도 운화선의 그 깊고 흉악한 뜻에는 미칠 수 없습니다. 인광 공자의 귀하고 통달한 기상이 도가에서 약을 캐는 동자가 될 리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마음을 완전히 행복시킨 후에 도동을 삼았다가 **훗날 반역을 도모하려 하는 것이니** 여러 가지 흉악한 속임수를 도저히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⁴¹⁾

㉔ 지금은 천하가 태평하여 요순(堯舜)의 다스림이 돌아온 것과 같아 성천자의 정사(政事)는 밝기가 거울 같고, 현인과 군자가 조정에 들어서 있어 요도의 무리를 용납하지 않았으며, 초왕 임희린이 사해(四海)를 돌아다니고 있으니 요사스런 도사가 감히 제 도술을 보일 수 있겠는가? 점점 도사들이 몰려나면서 **묘월 또한 이곳으로 옮겨 왔는데 요술과 환술이 신통하고 끝이 없어 밤낮으로 이를 갈며 명나라 조정을 없애고자 하였다.** 그러나 진인(真人)이 천하를 바르게 하고 반역한 오랑캐들을 깨끗이 했는데 자기의 범력이 비록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세다고는 하지만 상제를 어찌 이기겠는가?⁴²⁾

㉕ 이 무렵 **한왕(漢王)은 반역하는 마음이 더욱 가득하였으나** 틈을 얻지 못하다가 묘월과 옥경이 돌아오자 일을 의논하였다. 묘월이 말하였다.

“제가 이제 용국에 가서 병사를 일으키게 하겠습니다.”

묘월이 구름을 타고 오랑캐 땅인 용국에 이르렀다. 이때 옥선이 용국의 왕 달목을 수중에 넣고 마음대로 농락하여 나라의 정사를 제 스스로 총괄하고 시녀 일만 병을 모아 요술을 가르쳐 낭자군이라 이름하고 병사를 일으킬 것을 꾀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아들을 낳고 다시 딸을 낳자 용국 왕이 더욱 옥선에게 정신을 잃어 죽으라 하여도 죽을 판이었다. **묘월이 이르러 병사를 일으키라 보채니 옥선이 용국 왕에게 병사를 일으키라 이**

41)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14, 34~35쪽.

42) <임씨삼대록>, 권17, 57~58쪽.

르고 자녀를 맡긴 뒤 낭자군 일반 병사를 거느려 묘월을 총사령관으로 삼아 왕에게 하직하고 나왔다. 그러니 왕이 어찌 옥선을 가로막을 수 있겠는가? 이별을 슬퍼하나 감히 만류하지 못하고 흉한 눈물이 수없이 떨어지며 부디 성공하여 돌아오라고 천만 가지로 당부할 뿐이었다.⁴³⁾

①은 묘혜선이 정월염에게 도망할 것을 권하며 하는 말이다. 주인공 가문인 정월염의 시선에서 진소아를 평가하는 묘혜선은, 진소아가 평소 온전한 정기를 가진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괴롭게 여겼는데, 지금은 정기가 바른 정월염을 곁에 두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정월염이 전향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제자로 삼으려고 애쓰는 이유는 신선이 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까닭은 명나라 조정에 해를 끼치고 반역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정월염 남매와 대비하며 진소아를 부정(不正)한 정기를 지닌 반역의 인물로 규정하는 것이다.

②은 묘월이 동굴에서 3년째 수련하고 있다는 설명에 이은 서술자의 말이다. 묘월이 수련 중인 동굴의 내력은 중국소설 <봉신연의>의 서사를 차용하여 구성되고 있다. “이곳은 본래 구미호가 도를 닦다가 사람의 해골을 쓰고 나와 달기(妲己)가 된 곳이었다. 유소씨(有蘇氏)가 은(殷)나라 황제 주(紂)의 잔인하고 난폭함을 두려워하여 미인계를 썼을 때 구미호가 삼키고 달기(妲己)가 되어 유소(有蘇)의 딸인 척하고 주를 망하게 했다. 은나라 600년의 기틀을 없애고 강산을 엮친 요사스런 도사들의 도굴이 되어 여러 대 이어졌던 것이다. 이곳에서 간간히 요괴가 나와 사람을 놀라게 했지만 강산의 주인이 생기면서 요술을 보이지 못해 이 굴에 숨어 있었다.”⁴⁴⁾

서술자는 은나라 600년의 기틀을 없앤 달기와 도사들이 있던 소굴에서 수련한다는 말로 묘월에 대한 반역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그리고 지금은

43) <임씨삼대록>, 53~56쪽.

44) <임씨삼대록>, 권17, 57~58쪽.

명나라 황실이 강산의 주인이 되어 도사들이 숨어 있는 공간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든 나와 또 한 번 국가의 기간을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곳에서 묘월이 수련을 하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법력을 갖추고 밤낮으로 명나라 조정을 없애고자 이를 가는 것이다. 이러한 묘월은 주인공 임희린의 시각에서는 반역의 오랑캐가 된다.

③은 묘월이 자신의 제자 옥경군주와 옥선군주의 무리를 규합하여 명나라 조정을 치기 위해 병사를 일으키는 장면이다. 명나라 황실의 구성원이지만 권력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옥경군주의 부친인 한왕은 반역의 거사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 묘월과 의논한다. 묘월은 옥선군주가 왕비로 있는 융국에 가서 병사를 일으키도록 설득하고, 스스로는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어 전장으로 향한다. 표면적으로는 조력자처럼 그려지지만, 실상은 묘월이 집단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진소아와 묘월 등의 존재서사는 소설의 세계 안에서 중심 질서에 대한 반역의 의리 담론을 구현한다. 반역의 의리 담론은 지배적 의리 담론의 시선에서 불온시 되는 목소리이다. 이러한 목소리의 주체는 주류 질서의 시각에 포착되지 못하는 ‘그림자 구성원’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완월회맹연>과 <임씨삼대록>에 등장하는 역사 기반 선협형 인물의 서사는 ‘주원장의 명나라’에 살지만, 사회가 인정하는 ‘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했거나 사회에서 거부당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이들은 명나라의 영토에 살지만, 명나라의 진정한 구성원이 되지 못하는 경계적 존재, 즉 경계-성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명나라의 소멸과 전복’은 기존 질서 내에 구축된 지배적 관계에 틈을 내는 탈관계의 행위이며, 한 사회의 평등한 공론장에서 ‘자기 몫을 가지지 못한 자들의 목소리’⁴⁵⁾를 지향하는 ‘담론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45)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역,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도서출판 길, 2013, 214~216쪽.

4. 국문 장편소설의 서사문법과 장르적 확장 가능성

역사 기반의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본 선협형 여성 인물의 존재서사는, 도선과 무협의 이미지를 통해 주변부 속성의 결합을 시도하고, 역사의 패자 서사를 통해 타자의 기억 소환하며, 반역의 의리 담론을 통해 탈관계와 경계-성원의 목소리를 지향한다. 이러한 존재서사의 등장은 국문 장편소설의 서사문법과 장르적 확장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소설사적 의미를 지닌다.

선협형 여성 인물의 등장은 국문 장편소설을 구성하는 서사문법의 주요 지점을 확인하고 장르적 가능성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애정 전기소설이나 영웅소설이 작품군의 내용이나 미감, 서사 구조의 주요 특징을 반영하여 장르명을 설정한 것과는 달리, 국문 장편소설은 표기 문자와 편목을 기준으로 장르명을 구성했다. 왜냐하면 국문 장편소설은 방대한 작품 세계로 인해 한두 가지 특징으로 장르의 서사문법을 규정하는 것이 어렵고, 표기와 편목은 동일하지만 작품의 성격이 상이한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대하소설이라는 명칭도 같은 맥락에서 붙여진 이름이다.⁴⁶⁾ 이에 따라 연구사 초기에는 가문소설이라고 이름하여 국문 장편소설군에서 포착되는 주제의식의 일단을 드러내기도 하고, 연작형 삼대륙계 소설이나 연작형 소설라는 이름으로 주요 작품군의 형식적 특징을 강조했으며,⁴⁷⁾ 최근에는 사족소설(士族小說)이라는 용어로서 그 담당층의 성격을 구체화하려는 노력도 있었다.⁴⁸⁾ 또한 단위담의 결합이라는 서사 확장의 패턴을 지적

46) 이상택, 「조선조 대하소설의 작자층에 대한 연구」, 『고전문학연구』 3, 한국고전문학회, 1986, 228~246쪽;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276쪽;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 1~368쪽.

47) 임치균, 「연작형 삼대륙 소설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1~210쪽.

48) 김수연, 「18세기 사족(士族) 소설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유(儒)·도(道) 쟁론」, 『우

하기도 했다.⁴⁹⁾

이 글에서는 국문 장편소설의 주요한 서사문법 중 하나로 선협형 인물의 부각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들 인물 유형은 다른 작품군에 비해 국문 장편 소설에서 수적으로나 비중 면에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등장한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역사 기반의 선협형 여성 인물은 단순히 주인공을 고난에 빠뜨리기 위해 설정된 기능형 인물이 아니라, 주인공과 대등하거나 한때는 더 강력했던 역사적 위상과 네러티브를 존재서사로 가지고 있는 인물형이다. 그들의 서사는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적(史的) 사건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독서과정에서 단순한 악인이나 녹록한 역적으로 수용되지 않는다. 또한 선협형 인물은 상당 수준의 자기 논리를 구축하고 수련을 성취한 인물로 그려진다. 그것은 그들이 주인공과 대등한 수준으로 작품의 한 축을 담당하며 전체 서사를 이끌어 나가는 근거가 된다.

국문 장편소설은 구체적인 사실(史實)을 배경으로 삼고, 실제 사건과 상황을 소설의 시간과 동기화하여 작품 서사의 주요한 부분으로 끌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때 주인공은 대개 역사의 승자이며 현재의 중심 권력에 속하는 유교적 인물로 그려지고, 선협형 인물은 역사적 패자의 서사를 자기 서사의 형태로 재현하며, 유교 기반의 군자와 숙녀에 맞서는 도선 기반의 이인과 협객의 이미지를 획득한다. 그들은 주인공과 대척점에 있지만 절대적 악인이나 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역사에 대한 해석은 시대와 입장에 따라 달라지고, 그에 따라 역사 기반의 선협형 인물에 대한 도덕적 판단도 유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국문 장편소설에서 유교와 비(非)-유교 사상 간의 대등한 논쟁이 주요한 장면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⁵⁰⁾

리문학연구』 69, 2021, 41~77쪽.

49) 송성욱, 「婚事障礙型 大河小説의 敘事文法 研究 : 單位談의 展開樣相과 結合方式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237쪽.

50) 김수연(2021), 앞의 논문.

선협형 여성 인물의 부각은 국문 장편소설이 〈검녀(劍女)〉, 〈검기(劍技)〉, 〈여협(女俠)〉 등 조선후기 한문 검협서사가⁵¹⁾ 자리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무협소설로의 장르적 확장 가능성을 내포한다. 20세기 이후 중국에서부터 상업소설의 대표 장르로 부상한 무협소설은 멀리는 『사기』의 「유협열전」이나 「자객열전」에 나오는 주가(朱家)나 섭정(攝政) 등의 기록에 단서를 두고, 당나라 전기 〈규염객전〉, 〈홍선전〉, 〈섭은낭〉에서 주요 요소가 발견되며, 후대에는 송·원·명의 필기(筆記)와 화본(話本)과 장회체 소설에서 분산적으로 등장하다가, 청말의 〈삼협오의〉와 〈아녀영웅전〉 등에 이르러 독자적 장르를 구성한다.⁵²⁾

한국 문학사에서 무협소설은 1960년대에 중국소설의 번역으로 시작하여 창작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되는데, 국문 장편소설에 나타나는 선협형 인물은 한국 고소설사 내에 무협소설적 요소가 존재함을 확인하게 해준다. 이러한 서사문법이 형성된 문학사의 내·외적 요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대략 당나라 전기(傳奇) 이후 중국의 송·원·명·청 시기 장편소설에서 행협(行俠)의 화소를 수용한 것처럼 국내에서도 소설이 장편화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유행한 세정소설적 요소와 함께 협객 화소와 애정 화소를 결합한 언정무협(言情武俠)이나 검선(劍仙) 화소를 결합한 신마검협(神魔劍俠), 협객의 활약 시기를 작품의 향유 시대와 근접하게 설정하며 역사적 배경을 차용하는 역사무협(歷史武俠)의 내용이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⁵³⁾ 언정무협과 신마검협은 20세기 초 구파 무협의 특징을 드러내는 용어이지만, 그 서사의 계보는 〈아녀영웅전〉과 〈칠검십삼협〉에서 확인되고, 역사무협은 20세기 중반 신파 무협의 특징으

51) 송정우, 「조선후기 한문 검협서사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1~93쪽.

52) 정동보, 「무협소설 개관」, 『대중서사연구』, 2001, 9쪽.

53) 국문 장편소설의 형성 과정과 중국 세정소설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수연, 「〈花氏忠孝錄〉의 문학적 성격과 연작 양상」,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200쪽 참조.

로 꼽히는데⁵⁴⁾ 그 계보는 당나라 전기에서부터 이어진다.

앞 장에서 살펴본 내용들은 역사 기반 선협형 인물의 존재서사가 ‘역사와 허구의 융합, 역사관의 재해석, 사회의 우회 비판’⁵⁵⁾이라는 점에서 무협소설과 특징을 공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외에 선협형 인물들이 드러내는 무협소설적 속성의 하나는 선협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선협형 인물은 일반적으로 무기(武器)와 도술(道術), 독약(毒藥)과 요약(妖藥), 주문(呪文)과 내력(內力)을 지닌다. 이것은 병기, 암기(暗器)와 독약, 내공(內功)과 무학(武學) 수양으로 표현되는 무협소설 속 협객의 특징과 유사한 이미지를 형성한다. 약의 제조와 내력의 수양은 도교의 외단술과 내단술에서 기원하는 상상력으로, 무협소설 속 무공과 내공에 대한 서사적 기원으로서 선협형 인물의 이야기가 지니는 위상을 추정해볼 수 있다.

둘째는 문파(門派) 중심의 관계 구축이다. <완월회맹연>의 진소아는 기능형 캐릭터인 일반적 악인 도사와 달리, 진심으로 어질고 훌륭한 제자를 널리 구한다. 그는 정월염의 뛰어난 자질을 보고, 그러한 기질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줄 알면서도 그를 납치해 제자로 삼으려 한다. 정인광 등에게 쫓겨 겨우 몇 명의 여도사를 데리고 도망가 청선산 복원사 계청관으로 근거지를 옮긴 후에도, 제자를 늘려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쓴다. 자기 무리가 삼천 명이 되어도, 수시로 민가에 내려와 10세 전후의 아름다운 여아를 납치해 제자로 들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며,⁵⁶⁾ 빼어난 제자를 얻기 위해서라면 관부(官府)도 침범한다. 이러한 진소아의

54) 한국의 경우 60년대 이후 무협소설이 유행하고 80년대에 더욱 성행하는데, 그 심리적 원인으로 정치경제적 불안과 불만, 가치관 혼란 상황에서의 탈출 욕구, 현실에서 불가능한 의리와 애정의 추구가 지적되고 있다. 정동보(2001), 앞의 논문, 10~15쪽.

55) 이치수, 「중국무협소설의 번역 현황과 그 영향」, 『대중서사연구』 6, 대중서사학회, 2001, 73~89쪽.

56)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권109, 2~3쪽, “십세 이상과 십세 이후 녀지 용식이 가미하고 지공이 있는 즈는 거두쳐 운무중 다려가 저의 데즈를 습고”

모습은 무협소설에서 하나의 문파를 이끄는 장문인(掌門人)의 이미지와 연결된다.⁵⁷⁾

셋째는 정(正)과 사(邪) 사이의 쟁론적 성격이다. 정파와 사파의 대결과 논쟁은 현대 무협소설의 주요한 서사 구도이다.⁵⁸⁾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선악 대결을 넘어선다. 먼저 대립되는 정파와 사파는 각각 사승 관계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비급(秘笈)과 교리를 전승하여 계파의 위상을 만든다. 선협형 인물의 서사에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묘월이 말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바람 속에서부터 작은 책을 내어주며 말했다. “이 책은 성고고의 『보책』으로 성고고가 패하여 구미호에게 갈 때 저의 스승이 신 금선대사에게 전하였습니다. 대사께서 제게 가르쳐주시기를 66가지 변화가 이 책에 있다고 하셨으니 이 책을 읽어 깨달음을 얻으면 천자의 황후가 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저는 힘써 읽으십시오” 이날 묘월이 남씨 부중에 머물면서 남소저에게 『보책』을 한번 가르치니 임씨 가문과 원수를 맺어 태어난 남소저가 어느 한 곳이라도 희미하게 깨달을 리 있겠는가? 묘월이 신기하다고 일컬으면서 책을 맡기고 내년을 기약하고 돌아갔다.⁵⁹⁾

인용문은 묘월이 남영설을 새로운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보책』을 전하는 장면이다. 이에 따르면 『보책』은 성고고에게서 금선법사로 이어진 뒤 현재 묘월에게 전해졌고, 이것이 다시 묘월의 제자들에게 전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승 관계의 설정과 무학의 핵심인 비급의 전수는 도술의

57) 도사와 선승[비구니]의 속성을 겸하고 뛰어난 법술로 자기 문파의 세력을 늘리기 위해 제자를 구속하고 압박하는, 〈의천도룡기〉 속 아미파(峨眉派)의 장문인 멸절사태(滅絶師太)에서 유사한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다.

58) 중국 무협소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국 고악(高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소림파, 무당파, 아미파, 곤륜파, 화산파 등이 정파를 대표하고 명교(明教)나 천웅교(天鷹教) 등은 사파를 대표한다.

59) 〈임씨삼대록〉 장서각본, 권21, 28~29쪽.

계보를 형성하여,⁶⁰⁾ 계파의 정통성을 담보한다. 이렇게 구성된 정통성을 바탕으로 할 때, 〈완월회맹연〉에서 진소아와 정월염, 장손활과 정인광 사이에 이루어졌던 유교와 도교 사이의 사문(斯文) 논쟁이 가능한 것이다.⁶¹⁾ 선협형 인물이, 통상 유교를 가리키는 사문(斯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도교가 진정한 사문(斯文)이라고 주장하는 장면은 무협소설로의 확장 가능성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5. 마치며

18세기 이후에 꽃피우는 국문 장편소설은 거질의 편폭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수많은 인물이 등장한다. 그 가운데는 이전 시기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인물 유형이 부상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선협형(仙俠型) 인물이다. 선협형 인물은 다시 선인형과 악인형, 유협형과 승협형과 도협형, 문협형과 무협형, 내단형과 외단형, 도술수련형과 서책수련형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대개 인물은 하나의 유형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을 결합하여 형상화된다.

그 가운데 이 글에서는 역사 기반의 선협형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그 존재서사를 도선과 무협의 이미지, 역사의 패자 서사, 반역의 의리 담론으로 나누어 살폈다. 각각은 조선후기의 사회적 맥락에서 주변부의 것으로 여겨지는 속성들을 결합하고, 타자의 기억을 소환하며 탈관계와 경제적 성원의 목소리를 지향하는 특징을 보인다.

60) 이에 대해 최수현은 “도술이 전수되는 맥을 알 수 있게 하며, 이들이 배운 도가 나름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여성들이 이렇게 형성된 관계를 통해 서로를 극진히 챙기는 모습을 보이게 하면 〈임씨삼대록〉의 전체 서사를 이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했다. 최수현(2017), 앞의 논문, 140쪽.

61) 김수연(2008), 앞의 논문, 53~62쪽.

이러한 인물 특성은 국문 장편소설의 중요한 서사문법 중 하나를 이루며 동시에 후대에 등장하는 협객서사와 무협소설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장르 확장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특히 오늘날까지도 인기를 끄는 무협소설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역사와 허구의 융합, 역사관의 재해석, 사회의 우회 비판’ 외에 선협형 인물을 드러내는 방식, 문과 중심의 관계 설정, 정(正)과 사(邪)의 쟁론적 성격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선협형 인물의 부각은 이전의 소설에서 보이지 않던 대상,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발견하게 하고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담론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로 표현된 세계는 비가시적 존재를 가시화하여, 우리가 사는 세계에 참여하는 목소리의 비중과 분할 비율을 새롭게 구성한다. 랑시에르의 용어를 빌리면 감성의 분할을 형성하고 재배분하는 것이다.⁶²⁾ 그것은 작가의 의식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작동하는 소설의 자기 구성방식이라 할 수 있다. 작가가 의식적으로 드러낸 중심인물의 목소리들 사이에서, 소설이 새로운 인물군의 목소리를 확대해 들려주는 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증언하는 동시에 사회 구성원 간에 배분된 목소리의 뒤편에 변경을 가져오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문 장편소설은 다른 장르에 비해 ‘초과 묘사와 초과 기술’이 많다. 초과적으로 기술되는 과정에서, 작가가 주제적 대상으로 의도하지 않은 것도 담기게 된다. 그중에는 당대 현실에 대한 흔적과 파편이 포함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문 장편소설에서 부각되는 선협형 인물과 그들의 목소리는 비가시적 존재의 목소리가 가시화되는 사회적 순간에 대한 증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62) 자크 랑시에르, 유재홍 역,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09, 11쪽.

참고문헌

- 〈완월회맹연〉, 장서각본.
 〈임씨삼대록〉, 장서각본.
 사마천, 『사기(史記)』
 안정복, 『동사강목』, 고전번역원.
 『태종실록』, 고전번역원.
- 김동욱, 「서울대본 〈옥원재합기연〉 소재 소설목록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연구』 47, 2015, 279~310쪽.
- 김보경, 「21세기 중국 선형 영화의 발전 및 그 공간 미학 연구-서유기류 작품을 중심으로-」,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2, 2019, 115~120쪽.
- 김수연, 「〈花氏忠孝錄〉의 문학적 성격과 연작 양상」,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200쪽.
- 김수연, 「18세기 사족(士族) 소설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유(儒)·도(道) 쟁론」, 『우리문학연구』 69, 2021, 41~77쪽.
- 김지연, 「여성 ‘문제해결자’형 인물의 활약과 〈임화정연〉의 윤리·화빙아·여희주·석가월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195~235쪽.
- 김지영 외 역, 『임씨삼대록』 1-5, 소명, 2010, 1~2218쪽.
- 데라다 다카노부, 서인범·송정수 역, 『중국의 역사, 대명제국』, 혜안, 2006, 1~280쪽.
- 박희병, 「전기적 인간의 미적 특질: 전기소설 서사문법의 규명을 위한 예비적 작업」, 『민족문화사연구』 7, 1995, 120~140쪽.
- 박희병,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돌베개, 2008, 1~186쪽.
- 송성욱, 「婚事障礙型 大河小説의 敘事文法 研究: 單位談의 展開樣相과 結合方式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237쪽.
-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 1~368쪽.
- 송정우, 「조선후기 한문 검협서사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1~93쪽.
- 완월회맹연 번역연구모임, 『현대역 완월회맹연』 1~3, 휴머니스트, 2022, 총 1360쪽.

- 유약봉, 「선협 영상 작품에서의 미장센 특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80쪽.
- 이상택, 「조선조 대하소설의 작자층에 대한 연구」, 『고전문학연구』 3, 한국고전문학회, 1986, 228~246쪽.
- 이치수, 「중국무협소설의 번역 현황과 그 영향」, 『대중서사연구』 6, 대중서사학회, 2001, 67~117쪽.
- 임치균, 「연작형 삼대륙 소설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1~210쪽.
-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역,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도서출판 길, 2013, 1~251쪽.
- 자크 랑시에르, 유재홍 역,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09, 1~380쪽.
- 정동보, 「무협소설 개관」, 『대중서사연구』, 2001, 9~41쪽.
- 조현우, 「〈사씨남정기〉의 악녀 형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2006, 319~348쪽.
- 채윤미,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선도를 수련하는 여성 형상 연구-〈임화정연〉, 〈보은기우록〉, 〈명행정의록〉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43, 2020, 133~165쪽.
- 채윤미, 「한글장편소설의 요승·요도 형상 연구-〈임씨삼대륙〉, 〈쌍성봉효록〉, 〈명행정의록〉, 〈명주보월빙〉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0, 2020, 141~173쪽.
- 최수현, 「〈임씨삼대륙〉에 나타난 도술의 특징과 그 기능-애정 욕망 발현 여성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3, 한국고소설학회, 2017, 127~159쪽.
- 칸트, 강영계 역, 『도덕의 계보학』, 지만지, 2009, 1~115쪽.
-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276쪽.
- 한길연, 「탈속 공간을 지향하는 여성영웅들에 관한 小考 : 〈화정선행록〉의 ‘충효혜’와 〈임화정연〉의 ‘석가월’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7, 국문학회 2002, 325~355쪽.
- 許慎 撰, 殷玉裁 注, 『說文解字注』, 中州古籍出版社, 2006, pp. 1~867.

ABSTRACT

Narrative of the existence of historically-based,
Seonhyeop(仙俠) female characters in Korean full-length novels

Kim, Soo-you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the female character of the Seonhyeop(仙俠, hermit martial arts) type, which became popular in the 18th century, and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appearance of this type of character in terms of the narrative grammar and genre possibilities of Korean full-length novels. If we look at the history of Korean classical novels, we can discover the phenomenon of meaningful character types being developed in earnest around specific genres in each era. Representative examples include 'fantastic existence' in biographical romance novels that appeared after the 10th century and 'evil woman-type characters' in early full-length novels after the 17th century.

In the 18th century, Korean full-length novels with a large volume were popular, and one of the newly emerging character types at this time was the Seonhyeop type character. This character can be further classified into good and evil people, Confucian and Taoist people, civilized and martial people, internal and external, Taoist and martial arts practitioners, and so on. However, one character does not embody only one type, but is embodied by combining several types of personality.

Among them, if we divide the narrative of the existence of Seonhyeop female character character based on history into the image of Taoist and martial arts, the narrative of the loser of history, and the discourse of loyalty in rebellion. Each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combining peripheral properties, recalling memories of others, and aiming for the voice of non-relationship and marginal members. These character characteristics form one of the important narrative grammars of Korean

full-length novels, and reveal the possibility of genre expansion in that they are connected to the epics of heroism and martial arts novels that appeared in later generations. In particular, we can discover the early aspects of martial arts novels that are still popular to this day. Representative examples include the way of revealing the ability for Seonhyeop,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hips centered on factions, and the nature of the argument between right and evil.

The highlighting of the character of the Seonhyeop type can be said to be a discourse event in that it discovers and embodies an object that had not been seen and a voice that had not been heard in previous novels. The world expressed in language makes invisible beings visible and reorganizes the proportion and division ratio of voices participating in the world we live in. It is a self-organizing method of the novel that is unrelated to the author's conscious intention. Among the voices aimed at by the author, the novel's expansion of the voices of new characters testifies to the situation at the time and at the same time reflects the voices distributed among members of society. It can be said to be an event that brings about a change in the share of.

Key Words

Korean full-length novel, <Wanwöl hoemaengyön>, <Imsi Samdaerok>, Seonhyeop(仙俠, hermit martial arts) characters, Martial arts(武俠)

논문투고일: 2023.10.16.

심사완료일: 2023.10.31.

게재확정일: 2023.11.02.